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어버이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 꾸러기학교가 10일(화)-11일(수) 수원으로 여행을 다녀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29차 임시회의가 다음 주일(15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청소년주일입니다. 푸른꿈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9 호

2022년 5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시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자기기의 대표인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화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은행 업무와 웬만한 일처리는 컴퓨터와 같이 활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미생활을 돕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멋진 기기가 되었습니다. 이 편리한 기술들은 하나 둘씩 추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발전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발달이 10년 앞선 세대에게 가면 점점 더 사회로부터의 도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을 함께 하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서는 기술을 더 잘 활용하는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급 임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확대되어 음식점에서도 벌어집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서 황당해 하다가 어느새 길어진 줄을 보며 당황해 줄에서 빠져나와 양보 아닌 양보를 하시는 분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포기 할 수 있는 음식의 문제이면 다행이지만 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욱 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의한 도태를 겪는 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던 문제는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집안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음식만 허비하게 만든다 생각하여 도태시키는 일은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멋지고 유명한 왕조였던 다윗왕조, 2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유명세는 그 당시 전 문명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가 죽고 아들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명하였고 또 그 나라를 잘 통치했다고 알려졌지만 막상 왕의 자리에서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문제도 계속 일어났으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이었던 시온성과 왕궁,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재정과 노동력을 무리하게 동원하였고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뽑혔으니 백성들은 대표자 여로보암을 세워 강제노동과 높은 세금을 낮춰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었기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개의 집단이 있었는데 먼저는 선왕 솔로몬을 섬기던 장로들이 있었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7년간 성전을 짓고 13년간 왕궁을 지은 후 각 지역에 많은 병참기지를 짓는 바람에 많은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에 의견에 귀 기울여줄 것을 건의 합니다. 한편, 젊은 신하들은 이제까지 왕권을 강화해 왔으니 더욱 강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왕권 강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후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시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주변국가와는 다른 이스라엘 만의 독특한 지파별 독립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통치체제로 강하게 결속되어 보였지만 사실은 12지파의 연방체였기 때문에 왕의 출신 지파인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10지파들이 새로운 왕으로 여로보암을 뽑고 독립된 국가를 세워버립니다.

물론 연장자의 모든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대를 뚫고 온 시간들이 있었으며 그 시간동안 얻은 통찰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삶을 통해서 익혀진 통찰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간의 갈등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오래된 석판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고대 철학자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한번쯤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잊은 세대, 혹은 이전 세대의 유산을 지우려고 한 세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점점 상업적으로 바뀌어가는 어버이날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마음을 담아 꽃을 달아드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뜻깊은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신명기 5:16.

한주간 말씀

“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로마서 10:1~13

제목 : 구원에 이르는 길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전선희 집사

찬송 : 300 292 436 521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4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유대인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힘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5~13절 구원에 이르는 길

율법에 근거한 의, 믿음에 근거한 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입과 마음이 반복되어 나온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 내용의 의미(Why)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그것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는 각 사람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마음으로 부활 신앙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마음의 중심을 살피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 ②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자.
- ③ 말씀을 낭독하는 습관을 들이자.

성서일기

책

나의 서재에는 수천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있어 진짜 책은 딱 한권이다. 이 한권의 책, 원형의 책, 영원히 다 읽지 못한 책.

그것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것은 비유로서의 책이 아니다. 실제로 활자가 찍히고 손에 들어 퍼볼 수도 있고 읽고 나면 책꽂이에 꽂아 둘 수도 있는 그런 책이다.

나는 글자를 알기 전에 먼저 책을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 전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느 책들은 소리 내어 읽어주시기도 했다.

특히 감기에 걸려 선열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에 어머니는 소설책을 읽어 주신다. 암굴왕, 무쇠탈, 장발장. 그리고 이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는 아련한 한약 냄새 속에서 들었다. 겨울에는 지붕 위를 지나가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여름에는 장맛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어머니의 하얀 손과 하얀 책의 세계를 방문한다.

어머니와 책의 세계는 꼭 의사가 주사를 놓고 버리고 간 상자 갑과 같은 것이었다. 주삿바늘은 늘 나를 두렵게 했지만, 그 주사약의 앰풀을 담았던 상자 속의 반짝이는 은박지나 흰 종이솜은 늘 포근하고 아름다웠다. 39도의 높은 신열 속으로 용해해 들어가는 신비한 표음 문자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상상력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오는 신비한 모음의 울림소리를 듣는다.

조금 자라서 글자를 익히고 스스로 책을 읽게 되고 몽당연필로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한 뒤에도 나에게서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던 책 한권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근원적인 그 책 한권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 환상의 책은 60년 동안에 수천수만의 책이 되었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 수십 권의 글을 쓰게 했다.

빈약할망정 내가 매일 퍼내 쓸 수 있는 상상력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자음과 모음을 갈라내 그 무게와 빛을 식별할 줄 아는 언어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목소리로서의 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드라마였으며 끝나지 않는 길고 긴 이야기책이었다.

이어령 산문집.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중에서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신명기 5 : 16
44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78, 275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에베소서 6 : 1-4
199

설교자
공동체

“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7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516(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병우 이어람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공동기도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의 계명 십계명의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원리이자 실천할 계명으로 주신 것은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올바른 권위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익히게 됩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올바른 권위는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절대적 가치로서의 부모 자신의 외모나 모습을 비롯하여 다른 것은 마음대로 바꾸어도 부모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나마 비춰주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베푸는 한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신앙과 진리 외의 것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기울어야 합니다. 주께 하듯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에 대한 긍지감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함으로 부모님들을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영화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수박 심어요. 그럼 여름 방학에 따야하는데 선생님이 다 따서 먹어도 될까? 호박 심고 싶어요. 호박은 덩굴이 옆으로 막 뻗어서 다른 밭으로 들어갈텐데... 땅콩을 심을까? 먹으면 안돼는 친구 있어요. 콩 심어서 두유 만들고 싶어요. 지금 심을 수 있는 콩은 강낭콩이에요. 토마토 심고 싶어요. 방울토마토 심어요. 옥수수도 심고 싶어요. 옥수수가 좋아요. 딸기 심어보자. 올해는 몇개 못 따지만 일곱살 되면 많이 열릴 거야. 이거 다 심으면 밭이 커져서 풀도 많이 뽑아야하고 물도 많이 줘야할 텐데 덥고 힘들지 않을까? 열심히 할 수 있겠어? 풀 하나 뽑고 힘들다고 할거면 올해는 밭 만들지 말자. 할 수 있어요. 힘든데 왜 해야하지? 같이 나누어 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며 모종과 씨앗을 사와서 딸기, 강낭콩, 방울토마토, 옥수수를 함께 심었습니다. 작은 페트병으로 각자 7~8번씩이나 물을 떠와서 밭에 물을 주며 주변 풀도 조금 정리하며 심었습니다. 작년에 물을 3번쯤 떠오는 힘들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신나게 일을 합니다. 개미가 막 달려들어서 잠깐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나누겠다는 마음이 가을까지 이어져 가길 내년에는 어린이에게 나누어줄 딸기도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트를 왕창 그려서 마음을 담아내기도 하고 힘들게 힘들게 색종이를 접고 또 접어 가슴에 달아드릴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꽃과 하트를 접어 붙여 카드를 만들고 뽀뽀뽀 글씨를 그려넣고 그림을 그려 장식도 했습니다. 무려 사흘에 걸쳐 작업을 했는데 부모님께 대한 마음 때문인지 정성을 들여 만들고 스스로 뿌듯해하며 집에 가져가서 드릴 순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수요일에 헤어지며 네 밤 자고 어버이날이라고 했지만 집에 가자마자 드렸겠지요.

어린이날 잔치를 했습니다. 꾸러기들은 공주로 거북이로 도너츠가게 사장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으로 한껏 꾸미고 학교에 왔습니다. 올해에도 선생님들이 연극을 선물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에 이어진 선생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여러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꾸러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집사님의 경운기 타기 선물도 받았습시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사진 속 꾸러기들의 행복한 표정이 남았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짧은 수업, 긴 휴일~~ 어린이날과 연휴를 기분 좋게 있는 한주였습니다. 어린이를 더욱 어린이로!! 4일 수요일, 멋부리는 날을 맞아 아주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각종 캐릭터로 변장을 하기도 하고, 드레스를 입기도 하고, 최고의 옷으로 나를 감싸고 서로 웃으며 반응하며 사진도 찍고 푸르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어린이날 깜짝 이벤트로 각 선생님들이 게임부스를 열었습니다. · 신발멀리던지기 · 풍선껌멀리뺨기 · 이마에서비스킷내려먹기 · 바둑알멀리팅기기 · 간장공장공장장 말놀이 순발력과 집중력과 적극성을 총 발휘한 놀이에 교육관이 들썩였습니다. 신나게 놀고 나서 먹는 점심은 또 얼마나 꿀맛이었는지요. 감자튀김에 어린이들이 황홀경에 빠졌더랬습니다. 짬을 내어 꾸러기 경운기타기 이벤트에 함께 한 것도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경기 시상식과 어린이날 축하 곰돌이 솜사탕을 하나씩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에너지 뽐뽐이었습니다. 어린이 특별 점심상을 차려 주신 홍정길장로님과 진정행권사님, 경운기로 달려주신 나송주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밝은 어린이 맑은 어린이 가득한 어린이학교 소식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따듯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멋쟁이들은 도보여행 후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가정학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도 가정에서 보냈는데요. 부모님께 의젓하고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간 못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는 멋쟁이학교 탁구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에 가는 학년별 여행 간식비가 걸려있는 만큼 열정 넘치는 멋쟁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새롭게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생활하겠습니다. 아자자~!

< 교사 : 박예나 >

도보여행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 저는 멋쟁이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이 되어 도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포근한 옷, 딱 좋은 온도와 조명, 편하게 앉아 있는 지금. 일주일 전 도로를 걸으며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도보여행 후기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네요.

2019년, 멋쟁이학교 6학년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도보여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1이 되었어요.

솔직히 학생일 때 도보여행은 정말 '피, 땀, 눈물...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선배이자 선생님이로 가는 도보여행이라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가벼운 가방, 차려진 밥상, 따뜻한 샤워, 원터치 텐트 안 부러운, 학생들이 쳐주는 텐트까지~ 몸보다는 마음이 무거울 여행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멋쟁이와 함께 다시 도보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커져만 갔었습니다.

물론 여행이 시작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피, 땀, 눈물'의 도보여행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πππ 물집을 제거하며 흘리는 피, 뜨거운 아스팔트 위 땀, 피곤과 힘듦에서 우러나오는 한두 방울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멋쟁이들이 새삼 대단하고 장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1~3학년들은 처음) 가는 도보여행임에도 능숙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주변을 챙기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잘 해내는 모습을 보고 설부른 제 편견과 걱정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멋쟁이학교의 여행은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도보여행을 여러 번 다녀오고 올해 선생님이로도 다녀왔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멋쟁이들을 보면서 매일 반성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ㅎㅎ)

이번 여행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도보여행은 모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멋쟁이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기억들이 큰 격려와 힘이 되어주겠죠. 멋쟁이들의 소중한 도보여행 경험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박예나 청년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요한1서 4장 7절-12절

인도 : 장영미 전도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조속한 종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댓가로 사사로운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러시아 안에서 참 진리로써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

1.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고 순조로이 잘 연합될 수 있도록.
2. 터전을 새롭게 일구는 일과 농사와 또 현재 건물 문제 때문에 계속 공사 중인 그 일도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위해
3.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신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들이 다양하고 성실히 잘 세워져 가길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버이 주일>

1.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주일마다 들려지는 예배가 그 의미에 맞게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2. 아버이 주일을 맞아 무림방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며 사시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코로나가 안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공동체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장신대 신대원 1학년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화요일에는 소명교육공동체에서 교장선생님들 비롯한 6분의 선생님들이 사랑방공동체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공동체 대표이신 정태일 목사님께서 여러 질문에 답해주시면서 사랑방공동체를 알려주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밭에는 감자 잎이 무성하고 상추가 한창입니다. 주 중에는 공동 식구들이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휴일을 즐기던 공동체 자녀들도 고구마 작업에 동참하여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나사렛 목공소의 나무 건조대 작업과 주변 정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수요 정오 기도회, 수요 기도회 등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면서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전도사>